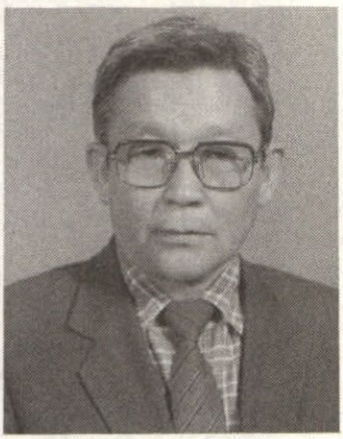
인성과 함께 한 나의 한평생



前 인성여고 교장 김 덕 용

1.「가자」는 대로 함께「왔던」제일학원 인성여중·고

1957년 2월, 난 인천의 인성여중으로 옮겨왔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대구에서 함께 오게 되어, 그분들과 인성학교를 새로 떠맡은 모양새가 되었다. 백운기(교장), 이동욱(교감), 오완영(국어), 박원호(수학), 조겸석(사회), 김석한(수학), 김신옥(음악), 남기주(역사), 김덕용(영어)등 새로 온 교사와 전부터 계시던 이문자(생물)선생님을 합한 10명이 그 당시의 교사 진영이었다.

第一教會가 전도의 목적으로 초등 교육기관인 무궁화 공민학교를 세웠는데, 이를 1952년부터는 중등 교육 기관인 '보성→제일→인성여중'이라고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해왔다. 1954년 3월 24일자로 문교부 승인을 맡고자 했을 때는 '제일교회－제일학원－제일여자중학교'의 命名을 원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6학급 규모의 '인성여중'으로 결정되었다.

부임 당시 학생 재적수는 131명이었으나, 학생들이 학교를 자주 빠져 가장 많이 출석한 날의 학생수가 92명일 정도로 학교 사정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38선을 넘어 왔거나 중국 동·북부 지방으로부터 인천항을 거쳐

입국하여 제대로 정착도 못한 가난한 가정의 자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업료를 내는 학생이 거의 없어, 2년여에 걸친 校舍 신축 작업은 중단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교사들에게 봉급을 지불할 만한 돈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아무도 봉급을 받지 못한 채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들에게는 월급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우리는 모두 "선생질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젊음의 꿈을 지니고 있었다. 9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한 교사라는 소문이 난 인천의 인성여중 교사들은 커다란 방 두 칸에서 잠을 잤고, 그리곤 떼를 지어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이동욱 교감 댁을 오가며, 사모님이 지어 주시는 아침, 저녁의 두끼 식사를 말끔히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 치우곤 했다.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리라는 각오가 되어 있던 우리들의 지상 과업은 중단된 신축 校舍를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1958년 봄 드디어, 인천에 온 지 꼭 일 년 만에 8개의 교실로 이루어진 신축 校舍(88년에 헐렸음)가 완성되었다. 그리곤 교실 여석을 꽉 채울 신입생을 맞이하여야 했다. 당시 인천에서 최고급 지대에 자리잡고 있던 인성여중의 학생 모집 대상 지역은 학교 주변의 부자 동네보다는 변두리 지역의 바닷가나 공장 주변의 달동네가 목표였다. 옹기종기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골목 골목길을 돌면서 우리들은 교사 한 명과 학생 서너 명이 한 팀을 이루어 붓으로 크고 기다랗게 "신입생 모집. 2·3학년 편입생도 모집. 인성여중"이라고 쓴 광고지 뭉치와 풀이 든 양동이, 솔등을 들고 돌아 다니며 전봇대나 반듯한 담벽만 보이면 키가 닿는 대로 그 광고지를 붙이며 다녔다.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의 사이가 師弟之間이라기 보다는 동지처럼 느껴졌다. 기억나는 것중 하나는 우리 팀에 내가 '스렘(Slim)'이라는 별명을 붙여 준 키다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커다란 키를 몹시 수줍어 했었는데 벽보를 붙일 때는 때를 만난 듯이 자랑스럽게 혼자서 그 일을 다하는 것이었다.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른 면모가 보여 지기도 했던 한마당이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변두리 동네로 달려 가곤 했다. 벽보 붙이는 일이 끝나자 교실에서 학생들과의 사이가 눈에 보이게 변화되었다. 딱딱한 자세로 일관되었던 어제의 훈장님이 아니라 부드러운 선생님이 되어 가고 있었다. 초조함이나 빚진 느낌은 사라

지고 대신 한 식구같은 평안함이 느껴졌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늘 겁에 질린 듯 보였던 학생들이 아니라, 고생을 함께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받던 일친구인 인간 김덕용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마주 앉아 있는 학생들이 되어 있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친밀감 있게 받아 들이려는 기색이 역력히 보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나 보다.

고생스럽던 학생 모집 작업이 곧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그 심정은 신입생을 받아 들이는 곳은 추상적인 '학교'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곧 내 제자를 내 동생을 맞아 들이는 기분이었다. 졸업시키고 남은 90여명 학생들이 문자 그대로 일심동체가 되어, 가난 때문에 학교를 쉬고 있던 자기네 또래들을 끌어다가 해당 학년에 편입시키고 하여 드디어, 2·3학년 교실까지도 차고 넘치게 되었다. 그러자 엄청난 소문이 퍼져 나갔다. '인성'이 그렇게도 알찬 학교라는 소문이었다. 건축은 계속 진행되었고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학비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러하기도 했지만, 그 소문의 근원은 전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우리 학교는 부자 학교다', '우리 학교는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자만 한다면 누구나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집처럼, 선생님들은 부모님처럼, 우리 학생들은 모두 한 자매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모두 학생들의 애교심의 발로였으니 '애교심(愛校心)'이란 다름 아닌 학생들이 인성여중을 내 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유공원 기슭, 송학동 한쪽 구석, 초라하게 보이던 '인성여중'에 드디어 사랑의 불길이 타올랐다. 어깨를 들어 올릴 정도로 큰 숨을 쉬며 선생질 한 번 제대로 해 보자던 작은 불씨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우리 인성인들 모두가 그 불기를 체험했던 것이다. 뜨거운 열기! 달아오르던 가슴! 지금도 가슴 뜨거워지는 그 때 그 役事! 오, 주여! 설립자 故 이기혁 목사의 기도와 이동욱 교장의 억척스런 실천력으로 학교 건물 건축공사는 계속되었고,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열정이 자신들의 교회와 동네에 '인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심어 줬으니 인성의 이름이 인천 敎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성여중은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었다. 인성의 진면목이 인천의 지평선상에 드러났고, 학생들의 나팔 소리가 들렸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11:1)

2. 우수한 教師가 많이 몰려오다.

1961년 3월 인성여고가 신설되자 우수한 교사들이 몰려왔다. 서울대의 종교철학과를 갓 나온 임성도란 분이 '내가 존경하던 스승이 교장으로 계신 학교'라 하면서 고향인 대구로 가지 않고 인성에 발을 붙이면서 대학 시절에 뜻이 맞던 친구들을 몰고 와 이상(理想)인지 오기(傲氣)인지를 품고, 재물 , 명예 따위를 외면하고 찾아 든 곳이 인성이었다. 그래서 인성여고는 개교초부터 활기가 넘쳤다. 고등학교 교실을 총각 선생들이 다 메꾼 셈이었다.

학문이란 간결한 것, 반듯하여서 쌓아 올리기 쉬운 것, 그러나 쓰지 않으면 굳어져 녹쓸어 버리는 것, 그래서인가 그들은 그저 열심히 주고자 애를 썼다. 주변을 싸고 도는 유혹에 눈길을 주지 않고, 지혜나 진리와 더불어 살려고 하던 그들은 거의가 대학 기독학생회 출신들이었다. 수업 시간에는 열기가 달아 올랐다.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알고자 했던 그들의 욕심에 감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가르치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부끄러워했던가? 열심히 참말로 열심히 공부하는 교사가 되어야만 떳떳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나의 그 생각은 그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진리를 알려 주고자 애쓰는 교사, 그리고 열심히 듣는 학생들, 얼마나 생기가 돌고 경이의 탄성이 가득찼던지!

'제대로 한 번 가르쳐 보겠다'고 의기 투합했던 교사들이 개교초부터 인성여고에 생명의 불을 일으켰던 것을, 사람들은 교장이 人福이 많아서라고 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도 분명하게 씌어 있지 않은가? '찾으라'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얻을 것이다'라고 찾고 주시는 인과 과정을 빼고 사람들이 얻는 것만을 보고 '복'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교장의 인복은 교장 자신의 노력과 하나님께로의 기도에 대한 응답임이 분명했다. 입시 준비가 마치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요사이의 경향은 교육에 대하여 제대로 한 번 노력도 한해 보고 입시에만 모든 비난과 변명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후기 모집이었던 그 당시에도 인성여고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교 3년 후에 우수한 대학으로 학생들을 상당수 진학시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

으니, 전기고교에서 실패하고 실의에 빠져 들어 온 학생들을 소꼬리의 열등감에서 닭머리의 우월감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던가! 인성인에게 그 때부터 들려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너희는 여호화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아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55:6,8~9)

3. 평준화 시절의 나의 교장 생활

인성여중 역사를 54년~56년, 57년~69년, 70년~92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초창기 • 성장기 • 평준화기로 하고, 고등학교는 개교한 지가 30여년이니, 평준화 시행년인 '74년을 기준으로 하여 61년~73년을 전반기, 74년~92년의 현재까지를 후반기로 임의 규정한다.

중학교는 학생들의 뜨거운 내학교 사랑으로, 고등학교는 좋은 뜻을 가진 한 무리의 교사들의 기름 부음으로, 인성의 성장과 성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울어져서 밤에 눈이 소리없이 쌓이듯이 오늘날 인성이 이루어진 것이지, 세상에 흔히 있기 마련인 부정이나 빈축이 조금도 없었으니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고등학교, 중학교 할 것 없이 학생과 선생님 사이는 사랑으로 가득하였고, 교장 교감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 간에는 따스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넘쳤다. 인성을 떠난 후에 비로소 '아, 인성이야말로 사랑의 터전이었구나'라고 느꼈다는, 떠나셨던 선생님들이 일부러 찾아 와서 하는 말을 생각하며, 여기 당시 인성 발전의 주역이었던 교사들을 새삼 살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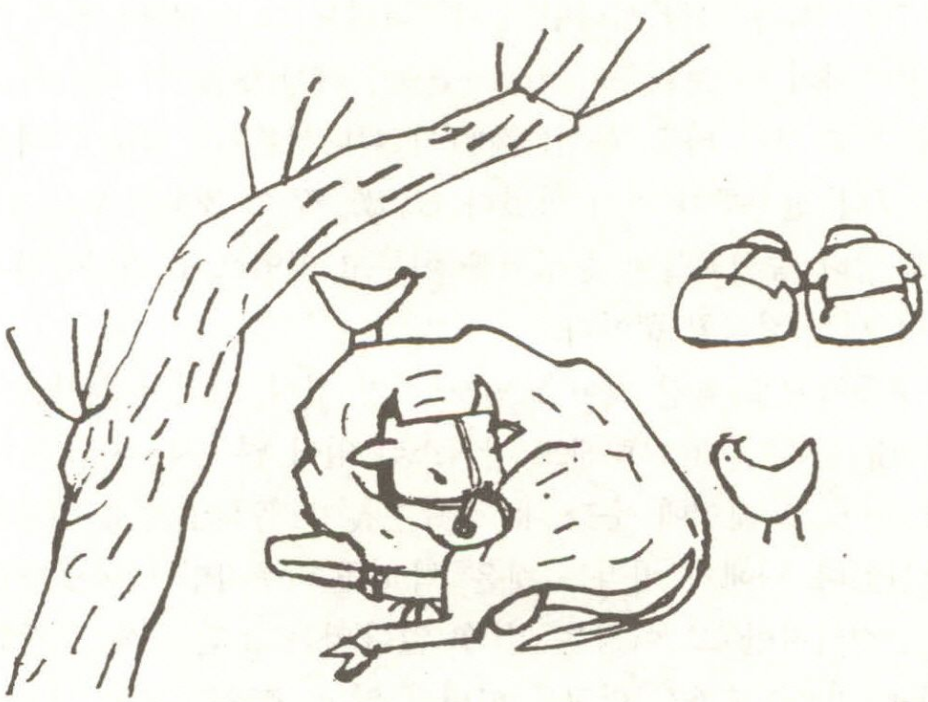
신바람을 일으키던 인성의 力士들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3년이 길다하고 인성을 떠나곤 했다. 거의 모두가 더 공부하기 위한 떠남이었다. '학교라면 인성외에 어디를 가겠습니까만, 박사 학위를 위한 공부를 계속했으면 합니다.'라는 것을 교장인들 붙잡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아쉬움은 컸다. 떠날 수 있는 有能함이 오히려 원망스러울 정도로 부러웠다.

신들렸던 신바람! 고생의 감미로움! 生의 파라독스(Paradox)! 30여년을 지켜본 '사람들의 거취(去就)가 안겨주는 대로 나는 그걸 받아 간직하였다. 유능은 가고 무능이 남는가? '인성'아! '인성'아! 그대 인성이 굳이 나를 붙잡지는 않더라도 떠날 수 없는 나야 남지 않겠는가? 떠날 수 없는 나는 애원하다시피 그대 곁에 남게 되는구나. 오열 속이 수치와 오기 가운데서 밑바닥으로부터 솟아 오르는 어떤 것이 나 스스로를 들여다 보게 하는구나. 나는 나 외에 아무도 아닌데, 나 아닌 남을 바라보고 있는가? 등신(等神)이로다. 아니다. 나는 등신(等神)이 아니라 등신(等身)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등신대(等身大)! 生의 성숙함을 바라며 自身과 自信을 키우고 굳히려는 나 等身은 새삼스레 자세를 가다듬어 본다. 유능한 사람들의 떠남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할 수 없이 고귀한 것을 얻은 셈이었다. 나는 그 이후 인생사의 얄팍한 희비에 대처하며, 늘 한 발 물러서서 일보 전진의 가능성을 낙관하며 스스로 행복을 즐겼다.

1975년 여름, 갑자기 나에게 교장을 하란다. 교장 이동욱, 교감 박원호(72년 5월)중 교장 취임의 완벽한 인성의 체제에 타성이 생길 만큼 안일했던 학교생활에 변화가 생긴 것이었다. 박사가 된 이동욱 교장이 서울로 옮겨 가시게 되면서, 한동안 학교가 굴렁거렸고, 그 때 이 '못난이'가 중학교 교장이 된 것이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당시 중학교가 이미 평준화된 후라는 것이었다. 76년 7월 26일자

학교 신문에 "그늘을 펴 들었던 사람이 그 그늘을 거두었다. 그늘을 즐기던 사람들이 백열의 햇살에 눈을 바로 뜨지 못한다. 어린 양들이 갈길을 찾아 방황한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 적이 있다. 산에 오르는 사람모양 발 밑만 지켜 보며 나날의 생활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다. 교장학을 배우지도 않은채 그저 단지 열심히 교실에 들어가 수업참관을 하고, 복도, 화장실, 옥상 할 것 없이 학교 구석 구석을 돌고 또 돌았다. 돌아 다니다 보니 눈에 띄는 것이 많았다. 눈에 띄는 대로 고쳐 주고 떼어 내고, 붙여 주고 하니 자연히 잔소리꾼이 되었다. 외교인가 섭외인가는 나의 능사가 아니었으니 회의나 있어야 외출을 했고, 집이 가까왔던 탓으로 점심도 학교 밖에서 하는 일이 드물었다. 선생들과는 별로 꾸미는 일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등신주의(等身主義)로 일관했다. 그러나 공부하려는 모습은 좀 과장이랄 정도로 과시했다. 교사나 학생에게 "공부하는 사람"하나만 심어주더라도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나의 이 보여주기(show-up)가 허상(虛像)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죄가 된다. 그것이 바로 '등신(等神)'이 아니겠는가?'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르다 보니 산마루가 거기 있었다. 85, 86, 87 연 3년을 우리 인성여중이 인천 시내 40개 남녀 중학교들의 등성이를 이루고 있었으니, 하나님과 선생님들께 이 글을 빌어 새삼 감사할 뿐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옮긴 것이 87년도인 것 같다. 갑자기 나보고 고등학교 교장을 하란다. 내 生에는 왜 그렇게도 갑작스런 일이 많은지? 지금도 혼자 고소(苦笑)를 짓곤 한다. 그 제안에 순간 내 '等身主義'가 '等神主義'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망설였다. 나에게 바라는 것은 '학교를 비우지만 말아달라'는 것이었기에 그건 내 능사이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라는 조건 하에 수락했다. 몸에 밴 대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고달픈 진학 지도에 힘쓰는 교사들과 밤늦도록 어울리곤 하였다. 3년이란 많은 날들 중에 학교를 비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독서로 깊은 밤을 즐기며 나름대로 새로움을 모색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3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정년이 되어 퇴직했다. '못난이'를 인성의 교장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인성인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빌4:12)